

《송사》고려전에 반영된 정치관계자료분석

김금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력사학분야에도 아직 해명하여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김정일전집》 제7권 363페이지)

력사학분야에는 지난 시기 인민대중의 투쟁과 창조의 력사뿐만아니라 피압박인민들을 억압착취하던 통치제도도 연구해명하여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 우리 민족의 첫 통일국가인 고려의 정치제도에 대한 연구도 그러한 문제들중의 하나이다.

이 글에서는 《송사》고려전에 반영된 정치관계자료를 통하여 고려전반기 중앙집권적인 통치체제의 일면을 밝히려고 한다.

《송사》는 원나라사람 탁극탁 등이 편찬한 송(960~1279)나라시기의 력사를 반영한 책으로서 총 496권으로 되어있다. 이 책은 본기, 지, 표, 렬전으로 구성되고 사료적내용이 많으며 외국렬전에 고려, 정안국, 발해국 등이 수록되였다.

《송사》고려전에서는 앞부분에 고려태조 왕건왕(재위 918—943)으로부터 17대 인종왕(재위 1123—1146)까지 고려와 송나라와의 관계기사를 기본적으로 서술하고 뒷부분에 고려의 령역과 수도, 중앙 및 지방통치제도, 형벌, 풍습 등 일부 제도 및 문화관계자료들을 서술하였다.

《송사》에서 고려의 정치관계를 전하고있는 자료는 모두 7건인데 내용별로 보면 고조선—고구려—고려의 계승성을 보여주는 기사가 4건, 고려전반기 지방통치체제의 일면을 보여주는 기사가 1건, 왕정개성부와 관련한 기사가 2건이다.

무엇보다먼저 《송사》고려전에 반영되어있는 고조선—고구려—고려의 계승관계기사에 대하여 분석하려고 한다.

《송사》고려전에는 우선 고조선과 고구려의 계승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기록되어있다.

《송사》고려전에는 《고구려는…대체로 부여의 별종이다.》(高句麗…蓋扶餘之別種)라는 기록이 있다.(《송사》권487 렬전246 외국3 고려)

부여는 고조선(단군조선)의 후국으로 존재하다가 B.C.15세기 중엽에 독자적인 고대국가로 등장한 우리 민족의 나라였다.

부여와 고구려의 계승관계를 밝히는것은 고조선과 고구려의 계승관계를 해명하는 중요한 문제로 된다. 그것은 부여가 고조선의 후국으로 존재한 같은 민족의 나라였기때문에 부여와 고구려의 계승관계를 밝히는것은 고조선과 고구려의 계승관계를 밝히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기때문이다.

부여가 고조선의 후국으로 존재하였다는것은 일련의 문헌기록들을 통하여 알수 있다.

고려후반기의 학자 리승휴는 《제왕운기》(하권, 동국군왕개국년대)에서 《본기에 이르기를 단군이 조선지역에 의거하여 왕이 되었는데 시라(신라), 고례(고구려), 남북옥저, 동북부여, 예와 맥이 모두 단군의 통치하에 있었다.》, 《각기 서로 나라로 칭하며 병탄하니 그 수는 70여개요, 그중 어느것이 대국인가, 먼저는 부여요, 그다음은 시라, 고례, 남북옥저,

예맥이니...세계는 모두 단군을 이은것이로다.》라고 기록하였다.

이처럼 부여는 단군조선의 후국으로 존재한 같은 민족의 나라였다.

부여와 고조선이 한 민족의 나라였던것만큼 부여와 고구려의 계승관계를 밝히면 고조선과 고구려의 계승관계도 밝혀지게 된다.

부여가 고구려의 계승국이라는것은 《고구려는 부여별종》이라는 《송사》고려전의 자료를 통하여 알수 있다. 이 자료에서 주목되는것은 《별종》에 대한 해석이다.

《별종》에 대한 우리 학계의 성과에 의하면 당대의 력사자료에 나타나는 《별종》은 일반적으로 그 나라가 어느 민족, 어느 족속에 의하여 세워진 나라인가를 밝히기 위하여 써오던 개념으로서 《별종》의 《별》(別)자는 그 무엇과 《다르다》는 뜻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다.

그것은 다음의 자료를 통해서 알수 있다.

《시조동명성왕은 성은 고씨요, 이름은 주몽이라. ...부여왕실에서 출생하여 항상 부여왕자들과 함께 성장하였다.》, 《후에 주몽이 부여에서 용납되지 못하여...남쪽으로 달아나 졸본에 이르러 도읍을 정하고 나라이름을 고구려라고 하였다.》, 《백제시조 온조왕은 그 부모가 추모 혹은 주몽이다.》, 《온조집안세계는 고구려와 함께 부여로부터 나왔다.》는 자료들은 고구려는 부여에서, 백제는 고구려에서 갈라져나온 사람들이였거나 그 후손들에 의하여 세워진 나라였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삼국사기》 권13 고구려본기 시조 동명성왕), (《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 시조 온조왕), (《삼국유사》 권2 기이 제2)

위의 자료들은 《별종》이라는 의미가 서로 다른 족속이라는 뜻이 아니라 한 민족에서 갈라져나온 같은 족속의 사회집단이였다는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고구려는 부여별종이다.》라는 기록은 고구려와 부여가 같은 민족인 조선민족이 세운 나라였다는것을 명백히 확인할수 있다.

부여가 고조선에서 갈라져나왔으며 고구려가 부여에서 갈라져나왔다는 력사자료들은 고구려가 고조선의 계승국이었다는것을 명백히 증시해준다.

《송사》고려전에는 또한 고구려-고려의 계승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기록되어있다.

그 자료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고려는 본래 고구려이다.》
- ② 《고려는...주몽의 옛 풍속을 따랐다.》
- ③ 《장흥년간에 권지국사 왕건이 고씨의 자리를 이었다.》

자료 ①에서 보여주는바와 같이 고려를 고구려라고 불렀다는것은 고려와 고구려의 계승성을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증거이다.

《송사》에 앞서 편찬된 《남제서》, 《주서》, 《수서》, 《북사》, 《구당서》, 《신당서》, 《구오대사》, 《오대사기》 등 력사책들에 고구려를 고려라는 항목으로 서술한것만 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송사》의 편찬자는 고려의 력사를 서술하려고 하면서도 《고려》라는 항목에 고구려의 력사도 함께 서술하였다. 이것은 당시 중국의 사가들이 고구려와 고려를 같은 나라로 인정하고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물론 서로 다른 시기에 존재한 두 나라의 력사를 뒤섞어 써놓은것은 잘못된것이지만 이것은 고구려와 고려가 같은 민족, 하나의 계통으로 이어진 나라라는것을 명백히 시사해주

고있다.

자료 ②, ③들에 보이는 《주몽의 옛 풍속을 따랐다.》와 《왕건이 고씨를 대신하였다.》라는 기록 역시 왕건이 세운 고려가 고주몽이 세운 고구려를 계승하였다는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자료에는 왕건이 고씨의 자리를 계승한 년대가 장흥년간으로 되어있다. 장흥은 중국 5대(후량(907~923), 후당(923~936), 후진(936~946), 후한(946~950), 후주(950~960))의 하나인 후당시기 명종의 년호이고 그 년호사용시기는 930~933년까지이다. 결국 장흥년간에 왕건이 고씨의 자리를 이었다고 하는것은 930~933년간에 왕건이 고려를 세우고 왕이 되었다는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930~933년 당시로 말하면 고구려는 이미 자기의 존재를 끝마쳤으며 고구려의 옛 지역에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가 200여년간 존재하다가 그나마도 거란에 의하여 무너지고 그 지역에는 발해왕세자 대광현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분조형식의 국가가 존재하고있던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건이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는 고씨의 고구려를 계승하였다고 한것은 고려가 고구려의 계승국이었다는것을 말해주며 나아가서 이 책의 편찬자도 고구려-고려의 계승관계를 인정하고있었다는것을 증명해주고있다.

이처럼 《송사》고려전에 반영된 고조선-고구려-고려의 계승관계자료는 고조선과 고구려, 고려가 하나의 피줄로 이어진 우리 민족의 정통국가였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다음으로 《송사》고려전에 반영되어있는 왕경 개성부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려고 한다.

《송사》고려전에는 《개성부가 관할하는 현이 6개이며 백성은 3천~5천명을 넘지 않는다.》, 《(고려)왕은 개주 독막군에서 사는데 개성부라고 한다. 큰 산에 의지하여 궁실을 지었고 성벽을 세웠는데 그 산을 신고산이라고 불렀다.》라고 기록되어있다. (《송사》권487 렬전246 외국3 고려)

이 자료는 고려초기 개성의 면모를 보여준다.

고려봉건국가는 건국한 다음해인 919년 1월에 수도를 개경으로 옮기고 수도가 자리잡고있는 지역을 개주라는 특별구역으로 개편하였다. 이와 함께 후기신라시기의 송악군, 개성군과 그것들이 관할하고있던 송림현, 강음현, 덕수현, 립진현 등 6개의 고을을 여기에 소속시켰다.

고려봉건국가에서는 995년(성종 14년)에 종전의 개주를 개성부로 개편하면서 그 관할 밑에 적현과 기현을 두었다. 이에 대하여 《고려사》권56 지리지 왕경 개성부조에는 《성종 14년에 개성부라고 하고 적현 6개와 기현 7개를 관할하게 하였다.》, 《고려사절요》권2 성종 14년 7월조에는 《개주를 개성부로 개편하고 적현 6개와 기현 7개를 관할하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있다.

우에서 본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의 개성부관할현수(적현수)는 개성부가 관할하고있는 현이 6개였다는 《송사》고려전의 기록과 일치하다. 이것은 《송사》의 편찬자가 고려의 개성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고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한편 《송사》고려전에 반영된 《백성은 3천~5천명을 넘지 않는다.》는 자료는 《고려사》나 《고려사절요》에는 없는 기록으로서 이것은 고려성립직후 개성부에 거주하고 사는 주민수를 연구하는데서 참고로 된다고 볼수 있다.

그리고 《고려왕은 개주 독막군에서 사는데 큰 산에 의지하여 궁실을 짓고 그 산을 신고산이라고 불렀다.》라는 기록 역시 국내 사료들에는 없는 자료로써 고려초기 개성부의 면모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처럼 《송사》고려전의 개성부관계자료를 통하여 개성부의 면모를 일정하게나마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송사》고려전에 반영되어있는 계수관제도관계자료를 분석하려고 한다.

《송사》고려전에는 《신라를 동주 락랑부로 삼아 동경이라고 불렀고 백제를 금주 금마군으로 삼아 남경으로 불렀으며 평양을 진주로 삼아 서경으로 불렀는데 서경이 제일 번창하였다. 모두 3경, 4부, 8목이며 군이 118개, 현진이 390개, 섬이 3 700개이다.》(《송사》권487 렬전246 외국3 고려)라는 기록이 있다.

자료에서는 고려시기 고을수를 경이 3개, 도호부가 4개, 목이 8개, 군이 118개, 현진이 390개라고 밝혔다. 그 총수는 도합 523개로서 서공의 《선화봉사고려도경》(권3 성읍)에 기록된것과 같다. 이것은 《고려사》지리지의 수자와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있다.

《고려사》지리지 서문에서는 고려전반기의 군현총수를 580여개(《고려사절요》는 584개)라고 하였으나 당시의 실제적인 고을수는 467개정도였다고 인정된다.

《송사》나 《선화봉사고려도경》의 기록이 《고려사》의 기록과 차이나는것은 두가지로 찾아볼수 있다. 즉 하나는 《송사》나 《선화봉사고려도경》의 편찬자가 자국밖의 사람인것으로 하여 고려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하지 못한데로부터 차이나지 않겠는가 볼수 있고 다른 하나는 책들의 편찬년대가 서로 다르기때문이 아니겠는가 생각된다.

《송사》나 《선화봉사고려도경》은 고려시기에, 《고려사》는 조선봉건왕조시기에 편찬되었으므로 군현총수가 523개였던것이 그후 규모가 확대되어 580여개로 되었다고 볼수 있다.

고려시기 지방통치제도는 계수관제도라고도 말할수 있을만큼 계수관제도가 이 시기 지방통치제도에서 중심적인 내용을 이루고있었다. 자료에서 밝힌것처럼 고려시기 계수관은 3경(서경, 동경, 남경), 4도호(안북대도호부, 안서대도호부, 안남대도호부, 안변도호부), 8목(황주, 광주, 충주, 공주, 청주, 상주, 진주, 라주)이었다.

계수관제도는 경, 목, 도호부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 군현제도, 지방통치제도를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계수관이 주현을 다스리고 주현이 속현을 다스리는 제도를 말한다.

고려시기에 도제도가 생겨나기는 하였지만 당시 도는 자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때 도의 장관인 안찰사는 해당 도에 상주하고있었던것이 아니라 순찰관처럼 순찰만 하고 중앙에 올라가곤 하였다. 즉 도는 존재하기는 하였지만 하나의 순찰구형식으로 되어있었다. 이 시기 실제로 도의 기능을 수행한것은 바로 계수관이였다.

그런데 계수관은 고려전기간 변함없이 자기의 기능을 수행한것은 아니였다. 고려전반기에는 계수관이 도를 대신하여 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였지만 후반기에는 그 기능이 점차 약화되었다.

물론 계수관이 도의 기능을 수행하였다고는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지 못하였다. 특히 봉건국가는 자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봉건적수탈면에서는 계수관을 개입시키지 않고 주현들과 직접 관계를 맺고 장악통제하였다.

고려전반기 계수관은 도제가 도입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아직 지방행정단위로 확고히 등장하지 못하였던 당시 형편에 적응한것이였다. 그러므로 도제가 공고화됨에 따라 계

수관제도는 점차 약화되어갔다.

이처럼 《송사》고려전은 계수관과 관련한 자료를 기록함으로써 고려시기의 고유한 지방통치제도인 계수관제도의 면모를 파악할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송사》고려전에 기록된 정치관계자료들을 통하여 고조선－고구려－고려의 계승관계를 알수 있으며 고려봉건국가가 성립직후 통치배들의 정치적지배를 실현하는데 복무하는 중앙 및 지방통치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전국의 모든 지역에 대한 중앙집권적인 통치를 실현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